

월요광장

오월의 기쁨 한 송이



정 봉 남
순천 기적의도서관장

인디언 달력으로 5월은 '오래전에 죽은 이를 생각하는 달'이라고 부른다. '큰 잎 사귀의 달, 기다리는 달, 씨앗과 물고기와 거위의 달'이라는 다른 이름도 있지만 나는 웬지 이 말이 더 가슴에 와 닿는다. 풀잎은 풀잎대로 바람은 바람대로 초록의 서정시를 쓰는 5월이라서, 구김살 없는 햇빛이 아낌없이 축복을 쏟아 내는 5월이라서, 멀리 떠난 이들이 더욱 그리워지는 것이다. 다시는 얼굴을 마주할 수도 만져 볼 수도 없다는 극명한 사실은 찬란한 계절 앞을 덩그러리고 커다란 슬픔을 던져 놓고 만다.

광주의 5월이 그랬다. 오래오래 숨죽여 울었던 사람들의 세월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을까. 알싸한 아픔이 온몸을 녹신하게 채울 때처럼 목구멍에 돌맹이가 차오르는 세월이었다. 가난하고 평범한 사람들이 광주민중항쟁이라는 역사의 현장을

어떻게 겪어 갔는지, 차마 말로 다할 수 없는 시간들은 또 어떻게 흘러갔는지, 나라에 의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삼십년에 삼백 년을 살아버린 사람들의 삶이 어땠는지 물을 수 없었다. 올해 5·18 전야제와 기념식은 달랐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맘껏 불렀다. 상처를 보듬는 치유의 조각보도 내걸렸다. 촛불의 의미를 되새기고, 어긋난 것들을 바로 세우고, 멀고 어려웠던 가야 할 길을 간다는 희망이 차올랐다. 존중받아야 할 이들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대통령, 오월의 역사적 의미를 천명하는 선언이 가슴 벅차 허염없이 눈물이 났다. '5·18동아' 김소희 씨에게 다가가 안아 줄 때는 모두가 울었다. 아름다운 위로였다.

5·18광주민주화운동 37주년 기념사에서 뜻깊은 청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줄 때는 거어이 눈물이 복받쳤다. "1982년 광주교도소에서 광주 진상규명을 위해 40일간의 단식으로 옥사한 스물아홉 살 전남대생 박관현, 1987년 '광주사태 책임자 처벌'을 외치며 분신 사망한 스물다섯 살 노동자 표정두, 1988년 '광주학살 진상규명'을 외치며 명동성당 교육관 4층에서 투신 사망한 스물네 살 서울대생 조성만, 1988년 '광주는 살아 있다' 외치며 숭실대 학생회관 옥상에서 분신 사망한 스물다섯 살 숭실대생 박래전..."

자신을 바쳐 정의를 증거하려 했던 젊은 넋들을 언제 이렇게 당당하게 불러주었을까.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존재를 향한 울림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 오래도록 남겨지는 일, 그런 일을 겪고 또 다시 일어나 밥을 먹고 출로 길을 걸어 나가는 일의 외로움을 견뎌 낸 유가족들을 깊이 이해하는 언어들..

"꼭마르고 아픈 세월에도 살아 주셔서, 천천히 아픔을 치유해 가며 무너지지 않고 살아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고난의 세월을 견뎌 온 국가 폭력 생존자들이 계셔서 오늘도 우리가 있습니다. 살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존경합니다." 이렇게 읽었다.

국가 권력이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유린한 우리 현대사의 비극에 맞선 시민항쟁이 민주주의의 이정표를 세웠다. 진실은 오랜 시간 은폐되고 왜곡되고 탄압받았지만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자는 치열한 열정과 마음이 오늘을 있게 했다. 목숨을 내건 극한상황에서도 민주주의를 지켜 낸 오월 광주야말로 우리의 자존의 역사이고 민주주의의 참모습임을 비로소 증명(正名)한 셈이다.

이제는 우리 앞에 놓인 지난한 과제들을 어떻게 풀어 갈 것인지 지혜를 모으고 고통의 연대를 통해 장애물들을 하나씩 잘 헤쳐 가야겠다. 희생자의 명예를 지키

고 민주주의 역사를 기억하고,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욕구에 민감하게 응답하는 정치를 기대하는 까닭이다.

꽃을 바라보면 꽃마음이 되고, 오래오래 별을 올려다보면 별마음이 된다고 했다. 소리 없이 피어나 먼 데까지 향기를 날리는 한 송이 꽃처럼, 하늘 높이 떠서도 뻗지 않고 소리 없이 빛을 뿜어내는 한 점 별처럼, 참된 민주 세상을 위해 서로가 품어야 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하늘은 고요하고 땅은 향기롭고 마음은 뜨거운 오월에 민주주의를 사랑한 사람들이 눈물 속에 피워낸 기쁨 한 송이를 안아 본 기분이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고 외쳤던 촛불의 힘을 믿으며 뚜벅뚜벅 갈 길을 가면 좋겠다. 그리하여 약속과 부탁의 말들이 수만 송이 꽃으로 피어나는 시절을 살고 싶다. 이 땅의 민주주의를 온전히 복원할 것이라는 다짐과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는 공약,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 규명과 헬기 사격까지 포함해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혀 낼 것이라는 약속, 광주의 아픔을 마음속 깊이 깨닫고 국민이 화합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보려는 의지가 부디 의연하게 실현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응원한다.

법조칼럼

모두가 평온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오 정 희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

은 가난한 사람들이 "어머니, 어머니"를 외치며 뒤따라왔다고 한다.

서서평이 보여주었던 헌신과 사랑은 다른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어 수많은 제2, 제3의 서서평이 생겨났고, 더 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그녀가 한국에 와서 정착하여 주로 활동하고 마침내 생을 마감한 후 문헌 곳곳에 광주 양림동이다.

호남은 예로부터 국가와 공동체의 위기상황에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의인들이 많이 배출된 고장인 만큼 이웃의 어려움을 지나치지 못하는 정이 넘치는 고장이기도 한데, 서서평이 이룬 결실은 서서평 혼자만의 노력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녀의 삶에 공감하고 이를 따라 배우려는 마음을 가진 호남인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할 것이다.

서서평의 사후에 우리나라는 해방이 되었고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루었지만, 아직도 우리사회에는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이웃들이 많이 있다.

특히 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들이 대표적이네. 가해자가 처벌을 받더라도 피해자는 일상의 삶을 계속 살

아내야 하기 때문에 피해를 입기 전의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주변의 도움은 경제적 취약계층·여성·아동·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가 범죄피해를 입은 경우 그 필요성이 더욱 절박하게 된다. 범죄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와 검찰에서는 여러 가지 제도를 운영 중인데 2005년 1월 '광주전남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해 전문적인 범죄피해자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2016년 1월 광주지검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신설해 여성·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전담하도록 하였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전국 58개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데, 범죄피해자들에게 생계비나 학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제적 지원, 심리치료 지원, 법률적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금전적·심리적인 것 외에도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지역사회 각종 기관들과 연계하여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가해자의 접근을 막아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주거지를 제공하거나 신변보호 조치를 하는 지원, 감정김치 등 필요한 물품을 적시에 제공하는 현물 지원, 다문화 가정의 피해자가 우리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 주는 지원, 미성년인 피해자의 치료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국국적 친권자의 체류자격을 전환하는 지원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범죄피해지원센터와 같은 각종 지원 기관들이 있지만, 범죄피해를 당하고도 범죄피해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지원기관을 잘 알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아동안아 장애인, 경제적 취약계층인 피해자들의 경우 그러한 처지에 놓인 경우가 많다.

어느 특정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을 돕기 어렵고,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의 기관은 물론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웃에 대해 관심과 애정을 가질 때 피해자들이 양지로 나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우리 모두가 이웃의 어려움에 관심과 애정을 기울일 때 서서평이 꿈꾸었듯이 모두가 평온함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기 고

달빛동맹, 두 도시 이야기



김 종 호
광주시 기획조정실장

역군형 발전의 절실함에 공감한 획기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사무이양 및 지방교부세율 조정을 넘어 지방정부에 실질적인 입법, 행정, 재정권을 과감히 부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벌써부터 지역자율성 확대는 물론 지역균형 발전을 이끌었던 '혁신도시 시즌2'를 기 대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기존의 행정단체에 머물기 보다는 도시 간 상생프로젝트를 국정 어젠다로 삼아야 한다.

이와 관련 모범적인 두 도시가 있다. 호남을 대표하는 '광주'와 영남을 대표하는 '대구'는 오랜 기간 진보와 보수를 상징하는 정치적 라이벌 관계로 비춰져 왔다. 이로 인해 선거철마다 지역감정의 갈등이 심화되기도 했다. 하지만 별로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두 도시는 지역발전을 위해 상생의 손을 맞잡고 뚜벅뚜벅 걸어온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시작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달빛동맹'이다. 밋고을 '광주'와 달구벌 '대구'의 상생 발전을 위해 2009년 '달빛동맹'을 맺고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을 선정해 공동으

로 추진해 오고 있다. 지난 2015년 12월 양북 4차로로 확장·재개통된 광주~대구 고속도로(88고속도로)는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광주~대구간 내륙 철도건설, 연구 개발특구 기술사업화 지원, 미래형 자동차산업 선도도시 기반 구축 사업을 두 지역 공동과제로 정하고 보조를 맞추고 있다.

특히 19대 대선을 앞두고 광주시와 대구시간 공동 대선공약으로 확정된 '광주~대구 내륙철도(달빛내륙철도) 건설 사업'은 지역균형발전 및 동서화합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광주~대구(191.6 km)를 연결하는 내륙철도를 신설하고 이를 호남선(광주~목포)에 잇고, KTX 포항연결선(대구~포항)에 잇는다면 서해와 동해를 연결하는 획기적인 국가고속 철도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두 도시의 동맹을 민간영역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서 기형적으로 비대해진 수도권 중심개발에 맞서 지역균형발전을 견인, 향후 세계도시와 경쟁할 수 있는 동력으로 삼아야 한

다. 시대적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중앙정부에 의지하기보다는 지방정부간 연대와 상생을 통해서 지역발전을 선도해야 한다.

이번 5·18민주화운동기념일에 맞추어 '달빛동맹'을 이끌고 있는 양·시·도의 위원들이 참석하여 '제5차 달빛동맹 민간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 여기서 달빛동맹 공동협력과제인 SOC 분야(3건), 경제·산업 분야(8건), 일반분야(9건), 문화체육관광 분야(9건), 환경분야(1건)의 추진상황을 긴밀히 논의했다. 바야흐로 달빛동맹은 두 도시가 중심이 되어 국가발전을 이끄는 협력모델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민선 6기 두 도시의 시정구호를 살펴보면 광주는 '더불어 사는 광주, 더불어 행복한 시민'이고 대구는 '오로지 시민행복, 반드시 창조대구'이다. 시민의 행복을 위한 시장을 펼치는 공통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도시는 매년 2·28민주운동과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시장과 시민단체가 교차방면해 서로 역사성을 기리고, 새로운 희망을 꿈꾸고 있다.

社 說

문 대통령 잇단 인사 '호남 홀대' 불식시키나

문재인 대통령의 파격 인사가 계속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신 인사들을 경제 요직에 중용하는가 하면 외교부 장관에는 70년 외교부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이 내정됐다.

문 대통령은 어제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직접 인사를 발표했다. 경제팀 핵심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김동연 아주대 총장을, 직속 경제자문 에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를 각각 지명, 임명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외교부 장관에는 강경화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보를 지명하고 국가안보실장에 정의용 아시아 정상 국제회의 공동 상임위원장을, 정책실장에는 장하성 고려대 교수를 임명했다. 통일외교안보특보에는 홍석현 한국신문협회 고문과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를 임명했다.

김 부총리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예산실장관과 2차관을 지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첫 국무조정실장으로 근무

했으며 '박근혜 경제 가정교사'로도 유명하다. 2012년 대선에서 안철수 당시 후보를 지지했던 장 교수의 정책실장 영입 역시 파격적이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주말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지명했는데 계속되는 인사에서 드러나는 특징 중의 하나는 호남 출신을 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인사에서도 김광두(나주) 장하성(광주) 등이 호남 출신이다.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전북 고창 출신이며 검찰 내 '빅4'로 불리는 법무부 검찰국장도 광주 출신의 박근택 대검 형사부장이 임명됐다.

문 대통령이 정부 출범 초기 호남 출신 인사를 중용하는 데에는 스스로 공약인 대량평·대통합 기조가 바탕에 깔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보수 정부 9년을 거치는 동안 호남 출신들이 부지 불식간에 겪은 인사가 불이익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그동안 제기된 '호남 홀대론'이 이제 완전히 불식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다시 불붙은 개헌 논의 '당리당락' 떠나야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정치권에 서 개헌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5·18 37주기 기념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이 기념사를 통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자신의 공약을 거듭 천명했기 때문이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방식은 다른 아닌 개헌을 통해서다.

문 대통령은 이어 19일 청와대에서 5당 원내대표와 함께 한 오찬 회동에서도 헌법 개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개헌 시기를 구체적으로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맞추겠다고 밝혀 개헌 논의에 불을 붙였다. 임기 초반 국정 운영의 동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개헌 이슈를 띄우지 않았던 과거 정부와는 다른 행보다. 그만큼 강한 의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야당들도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일제히 환영하고 나서 헌법 개정이 정권자들의 경우 그러한 처지에 놓인 경우가 많다.

자를 보이고 있다.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우선 개헌의 칼자루를 누가 쥌 것인지에 대한 이견을 좁히는 것이 급선무다. 야당은 개헌 주체가 국회 개헌특별위원회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청와대가 직접 나설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

개헌 논의의 핵심인 권력구조 방향에 대해서도 시각차가 있다. 4년 중임의 대통령제를 할 것인지 의원내각제를 할 것인지와 이견이 불거져 왔다. 권력구조 문제에 맞물려 선거구제 개편도 개헌 과정에서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선 개헌이 이념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기도 하다. 제1 야당인 한국당이 역사적 평가를 꺼리지 않겠다는 이유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30년 만에 본격화되는 개헌 논의가 정당의 당리당락에 휩쓸려서는 안 될 것이다.

無 等 鼓

우크라이나의 '오렌지 혁명'은 2004년 11월 대통령선거 직후 일어났다. 집권 10년 동안 실정을 거듭한 당시 대통령 레오니드 쿠치마는 민심을 잃은 데다 언론인을 살해했다는 의심마저 받고 있었다. 그는 총리인 야누코비치를 여당 후보로 내세워 권력을 유지하려 했고, 야당은 민주화와 개혁을 내세운 유센코 후보로 맞섰다.

선거 결과 여당이 재집권에 성공하자만 부정 선거로 밝혀지면서 시민들의 저항 운동이 일어났다. 시민들은 오렌지 색 옷과 깃발을 들고 시민 불복종 운동을 전개했다. 이른바 오렌지 혁명이다. 결국 대법원의 재투표 명령으로 치러진 재선거에서 유센코 후보가 승리한다.

오렌지 혁명의 성공은 시민운동이 가장 큰 힘이 됐지만 국가 비밀정보원 등 공동협력과제인 SOC 분야(3건), 경제·산업 분야(8건), 일반분야(9건), 문화체육관광 분야(9건), 환경분야(1건)의 추진상황을 긴밀히 논의했다. 바야흐로 달빛동맹은 두 도시가 중심이 되어 국가발전을 이끄는 협력모델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민선 6기 두 도시의 시정구호를 살펴보면 광주는 '더불어 사는 광주, 더불어 행복한 시민'이고 대구는 '오로지 시민행복, 반드시 창조대구'이다. 시민의 행복을 위한 시장을 펼치는 공통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도시는 매년 2·28민주운동과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시장과 시민단체가 교차방면해 서로 역사성을 기리고, 새로운 희망을 꿈꾸고 있다.

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대진교검사가 최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파격 발탁되면서, 과거 그의 '충성' 발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그는 2013년 10월, 국가정보원의 대선 기밀 댓글 사건 수사 때 박근혜 정부의 외압 의혹을 폭로한 뒤, 당시 보고 절차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중징계(3개월 정직)를 받았다. 이 사건으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왔을 때는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윤석열의 '충성'

"위법한 지휘·감독은 따를 필요가 없다"는 인상 깊은 발언을 남겼다.

윤 지검장이 검찰사 시절인 2002년 광주지검 근무 시, 출입기자였던 인연으로 그를 만날 기회가 자주 있었다. 부패와 비리 척결에 대해서는 단호했지만 파렴치범이 아닌 범죄자나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기억한다. 윤 지검장이 그의 예전 발언대로 권력자에 충성하기보다는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하는(검사 선서 중) 조직으로서의 검찰과 국가에 충성하는 검찰 개혁을 이뤄 주길 바란다.

/채희총 사회2부장 chae@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우편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사 회 2 220-0652	사 진 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